

내고장 일꾼



강인규 나주시장은 4일 오후 2시 한전 비전홀에서 열리는 제3차 에너지벨리 투자협약식에 참석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4일 오전 10시 30분 농업인회관에서 열리는 제11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졸업식에 참석한다.



이윤형 함평군수는 4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함평군체육회 임시 이사회에 참석한다.

무안 남약출장소·무안공항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 설치

무안군은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삼향읍 남약출장소와 무안공항 2층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설치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삼향읍 남약출장소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었고 무안공항은 가축단위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영유아와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 필요할 경우 인공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본과 가족관계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약출장소와 무안공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총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각장애 인용 키패드 부착, 음성안내, 주요 조작부에 점자라벨을 부착한 발급기로 사회적 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나주 010-5617-2605
010-3713-7458
- 함평 010-3773-2522
- 영광 010-8666-2882
- 화순 010-3666-5888
- 장성 010-3666-1300
- 담양 010-4154-8277
- 장흥 010-3613-6114

장흥 청태전 국가농업유산 지정됐다

보존 기반·관광자원 활용 등 3년간 15억 지원 지역농산물 브랜드 강화·농가 소득 향상 기대

장흥지역의 전통 발효차 청태전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자원 가운데 국가에서 보호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유산을 의미한다.

장흥 청태전은 구멍 뚫린 동전 모양으로 빚어 발효시킨 전통차로 구

수한 맛과 특유의 깊은 향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7년부터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청태전 제다업체의 노력으로 전통 제조방법을 체계화했으며 이후 상품화에도 성공했다.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천년을 이어 장흥 지역민과 함께 해 온 청태전의 역사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육우의 '다경'에 기재된 방식으로 차를 만드는

청태전 농업기술 시스템의 우수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 청태전 농업유산자원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3년간 15억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앞으로 청태전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로 이용해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청산도 구들장논을 비롯해 제주밭담, 구례산수유농업 등 12개가 지정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장흥 청태전. /장흥군 제공



화순군과 화순광업소가 함께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가치향상을 위한 업무협의. /화순군 제공

화순-화순광업소 상생발전 업무협의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협력

화순군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과 화순광업소는 최근 광업소 회의실에서 구중근 화순군수, 강순팔 군의회 의장, 대한석탄공사 김진열 감사, 박연규 소

장, 김영호 노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업무협회는 대한석탄공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화순광업소 관계자의 현황 설명에 이어 화순군과 광업소 측이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상생발전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연규 화순광업소장은 "석탄공사

창립 이래 화순광업소는 군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 고용창출 등 기업으로서의 가치와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화순군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중근 군수는 "지역경제가 발전하는데 공을 세웠던 광업소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직원들의 안정된 고용승계와 복지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경 기자

나주 '농업인 창업기술' 지원

나주시가 올해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사업 대상 업체로 봉황면 소재 천연발효식초 생산업체 '천년가향'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천년가향' 식초가공공장에서 준공식을 가졌

다. 천년가향은 나주 특산물인 배를 비롯해 와송, 산사열매, 사과, 현미, 황칠 등을 재료로 천연발효식초를 생산하는 단계별 내부시설을 갖췄다.

하화순천년가향 대표는 "발효식초 가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 가족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건강한

천연발효식초 생산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은 소자본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제품의 가공 및 생산, 장비구입 등 기반 조성과 유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성 건조벼 출하운송료 지원 호응

조건 확대...농가 부담 해소

2018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마무리된 가운데 장성군이 저소득 농가를 위해 지원한 건조벼 출하운송료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역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를 출하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진행되는 장고까지 벼를 옮겨야 하는데, 차량이 없는 농가는 차량을 임차하거나 돈을 주고 운송을 맡겨야 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군은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들에게 공공비축미 출하운송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나 이장협의회 등에 운송료와 상·하

차를 지원해 출하를 대행토록 했다.

그동안 출하운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는 소유농지 5,000㎡이하 농가 중 여성농업인이나 거주 3년 이상의 고령농가로 한정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유농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51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차가 없거나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쌀을 출하하는데 애로 를 겪는 농가가 많은데, 올해는 지원 범위가 확대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며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영광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내년부터 1,000원 도입

내년부터 영광에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때 거리와 상관없이 1,000원 만 내면 된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영광군청에서 김준성 영광군수와 최주태 (유)영광교통 대표는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영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과 방문객들은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현재 영광군 버스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km 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추가해 최고 3,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1,000원만 지불하고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은 영광군에서 보전하고, (유)영광교통은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 장애인 승객 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100원 택시 등을 운행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군민들의 농어촌버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영광을 내추추 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곽승훈 기자

클릭! 고향 소식



함평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함평군은 최근 군청 부근수실에서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한 이날 회의에는 나윤수 부군수를 비롯해 교육,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9명이 참석했다.

본 회의에서는 올해 실적보고를 시작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결과 보고, 내년도 추진 계획보고, 지역 자원 개발, 연계망 구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담양 건강증진 체험 프로그램 호응

담양군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농어촌 목욕장 연계 건강증진 체험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소는 최근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스킨프롬 감, 양파, 코치닐, 오배자 등의 천연 재료를 이용해 노란, 핑크, 카키색 등의 색상으로 염색하기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담양=장동원 기자



장흥 대덕읍 기부천사 쌀 기탁

장흥군 대덕읍이 최근 지역민이 기탁한 쌀 1,200kg을 지역 소재 행복드림 노인요양원과 경로당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대덕읍정미소 이상섭 대표와 (유)거평김중필 대표가 각각 600kg 씩 기탁한 것이다.

대덕읍정미소 이상섭 대표는 어려운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이어 올해도 백미를 기탁했다. (유)거평김중필 대표는 올해 기탁금 300만원에 이어 백미 600kg을 건네주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화순 경현마을 김치축제 개최

화순군 동면은 최근 동면 경치1리 마을회에서 주관한 경현마을 김치축제를 무지개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화순 경현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김치담기 시연, 김치 및 농산물 전시·판매, 김장 김치 나눔 행사 등으로 이뤄졌다. 주민이 직접 심고 잘 키운 배추 250포기로 김치를 담갔으며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화순=서호경 기자